“북한군 3천여명 우크라 침투…병력 대규모 늘어날 듯”

CNN 등 보도 “수 백명은 특수부대”…미 당국자 “확증할 수 없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전언이 나왔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한국과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우려하는 이른바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해당 사항을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에도 공식적 확인을 한 동안 하지 않은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당국자발로 3000여명의 북한군이 민간 트럭에 실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 떨어진 병영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이들 가운데 수백명만이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3000여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올해 12월까지 총 1만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CNN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군의 많은 숫자가 특수부대이며, 정보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파병군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잘 훈련돼 있어 전투력에서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군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실전 경험이 전무하고, 북한에서 이같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이유에는 전투 경험 확보 차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정보 당국은 또 전장에 투입된 병사 중 일부의 탈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 언어 장벽 또한 매끄러운 전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미 러시아군이 북한 병사를 향해 욕설을 한 감청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그럼에도 북한군 파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3국의 서방 당국자는 “파병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이 사안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동맹들이 긴밀히 주시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아파트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불에 탔다. /연합뉴스

美 “중국, 북한군 철수에 영향력 행사해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철수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 압박에 나서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도 중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관계 당국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한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통적인 혈맹 관계라는 점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대선 일주일 남았는데…해리스·트럼프 ‘초접전’

해리스 44% vs 트럼프 43%
로이터-입소스 지지율 조사
트럼프, 격차 좁히며 추격세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9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1%포인트 차이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와 지난 25~27일 미국 성인 1150명(등록 유권자 9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4%와 43%로 오차범위(±3% 포인트) 이내인 단 1% 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로이터 조사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고 있지만, 지난 9월 말 이후로는 격차가 계속 좁혀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격세가 강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21일 진행된 로이터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 포인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민 공약에서 유권자들의 뚜렷한 지지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두 후보 중 누가 경제, 실업, 일자리 문제에서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7%가 해리스 부통령을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경제 현안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유권자 중 26%가 경제 현안을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지지를 모은 사안은 이민으로, 이 사안에서 응답자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며 해리스 부통령(33%)을 크게 앞서 나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지면서 이번 대선이 예측 불허의 판세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두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7대 경합주 지지율 역시 막상막하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 대선 승패는 두 후보 중 누가 더 지지자들을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로이터는 지지 정당 별 유권자의 투표 의사 조사에서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 중 93%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민주당 등록 유권자 중에는 89%가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90년대생 태운 中 우주선 선저우 19호 발사

3명 중 2명 1990년대생·세번째 여성 우주인 탑승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9호를 30일 발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시각 이날 오전 4시 27분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9호를 장정(長征) 2F 로켓에 실어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향해 쏘아 올렸다.

발사 약 10분 만에 선저우 19호는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

선저우 19호 비행사는 차이쉬저(蔡旭哲·사령관)와 쑹링둥(宋令東), 왕하오쩌(王浩澤)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왕하오쩌는 유인 우주 임무에 나선 중국 세 번째 여성 비행사다.

다만, 공군 조종사 출신인 앞선 두 여성 비행사 류양·왕야핑과 달리 왕하오쩌는 로켓 엔지니어 출신이다. 주로 우주 실험과 화물 관리, 우주 정거장 운영 등을 감독하게 된다.

중국 매체들은 왕하오쩌와 쑹링둥이 처음 우주 비행 임무를 맡은 1990년대생 ‘주링허우’(90後)인 점에도 주목했다.

선저우 19호 승무원들은 올해 4월 지구를 떠난 선저우 18호 승무원들과 교대한 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가량 머물게 된다.

이들은 이 기간 여러 차례 우주선 밖으로 나가 미세중력 기초물리, 우주 재료 과학, 우주 생명과학, 우주 의학 등 실험에 나선다.

우주 잔해물에 대한 보호 장치 설치, 외부 탑재물 및 장비 설치 등 임무도 수행한다.

선저우 18호는 다음 달 4일 중국 둥펑 착륙장에 도착 예정이다. /연합뉴스